

그림으로 본
2018년 곡성군 사회지표

곡성군 사회지표 요약



1. 인구



세대 및 인구

2017년 주민등록인구

인구 30,131명

2013년 대비 2.8% 감소



합계 출산율

2017년 합계출산율

1.144명

30대 초반이 가장 높아



외국인 인구

2017년 외국인 인구

435명

남자: 228명, 여자: 207명

전년 대비 40명 증가



2. 가구와 가족



이상적인 가족구성형태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선호

94.0%



부모 부양

부모 부양 주체

47.4%

「가족과 정부·사회」



가족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61.8%



3. 소득과 소비



월 평균가구소득



200만원 이상
→ **35.0%**

〈주된 수입〉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부담되는 소비

보건의료비 32.5%

식료품비 31.1%

교육비 8.6%



생활용품 구입장소

전통시장 선호

음식료품 “42.7%”

의류, 신발 “35.0%”



4. 노동과 경제



직업 선택 요인

1 안정성(46.8%)

2 수입(30.1%)



일과 직장 만족도

일과 가정에 비슷하게

(47.4%)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



일과 직장 근로여건 만족도

만족(39.1%)

불만족(7.4%)



곡성군 사회지표 요약



5. 교육



교육환경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
80.0%

전반적인 학교생활 63.9%



교육환경 개선점

교육 프로그램 확대



39.4%



6. 보건과 의료



이용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
월 평균 이용 횟수

3.3회

이용 의료기관

(병)의원 71.5%



스트레스 정도

‘전반적인 일상생활’ 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음



49.8%



7. 주거·교통



주거환경

주거환경 만족도



만족
67.9%

「자연환경과 쾌적함」



귀농귀촌 필요한 자원

「정보제공 및 상담」



31.5%



대중교통 이용수단 및 만족도

시내/마을버스
51.9%



택시
39.7%



8. 환경



환경 체감도



녹지환경 61.4%



생활소음 49.9%



수질 47.7%



쓰레기 처리 45.2%



대기 39.1%

녹지환경에 ‘좋음’이 높게 나타남



환경보전 노력

분리수거



노력
75.1%

곡성군 사회지표 요약

9. 사회와 복지

보육시설 고려사항

1 교육내용 (43.6%)

2 주변환경 (22.8%)

보육문제 해결사항

보육비 지원 확대 26.9%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2.3%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

노인 돌보는사업 (노노케어) 36.3%

10. 여가와 문화

지역문화 행사 개최

긍정적이다 75.4%

지역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가 이유 48.9%

앞으로 하고싶은 여가활동

1순위 관광 25.7%

2순위 휴식 22.9%

11. 안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사회 안전

보통 이상으로 안전 95.8%

보통 이상으로 안전

안전한 도시 만들기 방안

CCTV 확충 48.8%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

참여한 적 있다 12.5%



향후 봉사 참여 의향 31.9%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곡성군민으로서 보통이상의 자부심이 있다 94.1%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지수)

10점 만점에 6.9점
군민 행복지수 상승

곡성군 사회지표 요약



13. 개별문항



청년층 인구 유입 정책

- 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마련 43.8%
- ② 농업분야지원확대 젊은부농 육성 26.0%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

- ①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5.4%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20.0%



우선 지원 교육과정



청소년 복지서비스



대중교통 만족도



관광여건 인식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과제



농업인 교육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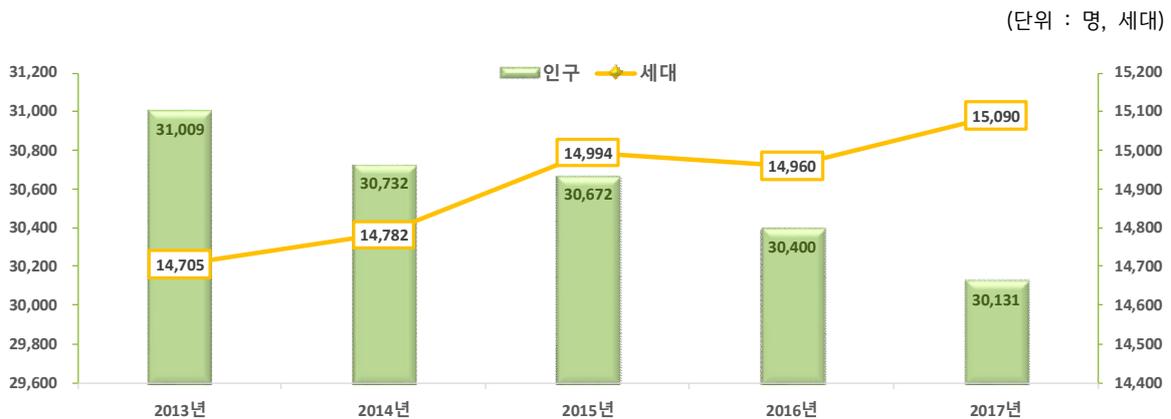
주요결과 요약

1. 인구
2. 가구·가족
3. 소득·소비
4. 노동
5. 교육
6. 보건·의료
7. 주거·교통
8. 환경
9. 사회·복지
10. 여가·문화
11. 안전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13. 곡성군 특성항목 부문

1. 인 구

- ▶ 2017년 곡성군의 인구는 30,131명으로 2013년(31,009명) 대비 878명(2.8%) 감소, 2016년(30,400명) 대비 269명(0.9%) 감소함
- ▶ 세대수는 15,090세대이며 2013년(14,705세대) 대비 385세대(2.6%) 증가, 2016년(14,960세대) 대비 130세대(0.9%) 증가함
- ▶ 인구의 남녀 성비는 '남자'(48.6%)와 '여자'(51.4%)로 2013년 이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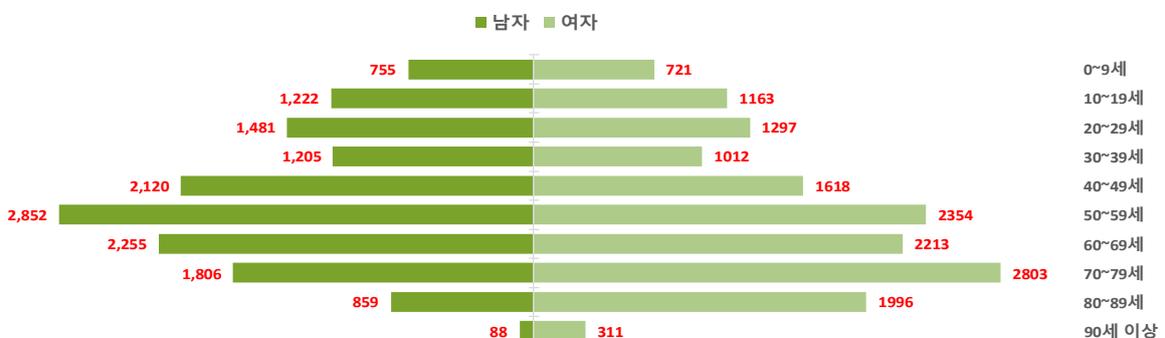
〈세대 및 인구〉



- ▶ '50대' 인구는 5,206명으로 전체 30,131명 중 17.3%를 차지함
- ▶ 연령별 인구 중 '50대'는 '남자'(2,852명), '여자'(2,354명)으로 남자가 더 많음
- ▶ '80대'의 인구의 경우 '남자'(859명)와 '여자'(1,996명)의 인구 차이가 크게 나타남
- ▶ 65세 이상 인구는 10,035명(33.3%)으로 2016년(9,912명) 대비 123명(1.2%) 증가함

〈세대 및 인구 성별 및 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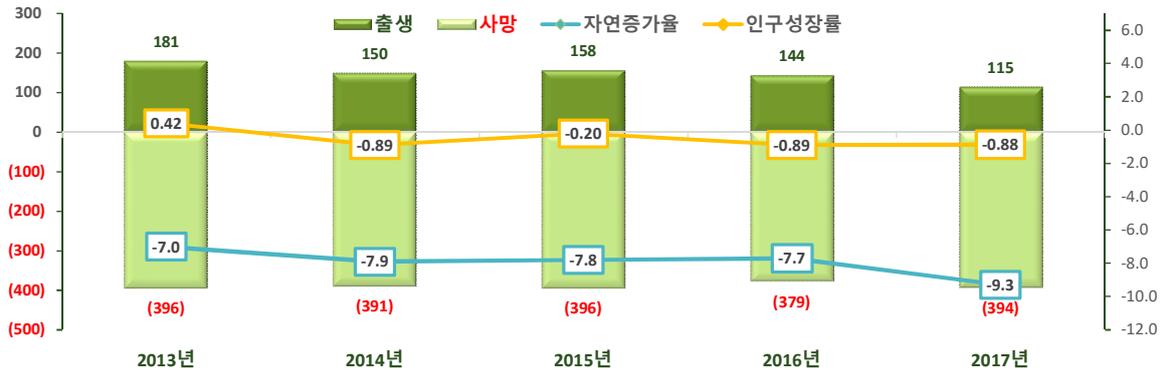
(단위 : 명)



-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간 곡성군의 평균 인구자연증가율은 -7.94로 나타남
- ▶ 2017년의 곡성군의 출생은 115명, 사망은 394명으로 나타남
- ▶ 인구성장률은 -0.88로 나타났으며, 전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보임

<인구자연증가율 및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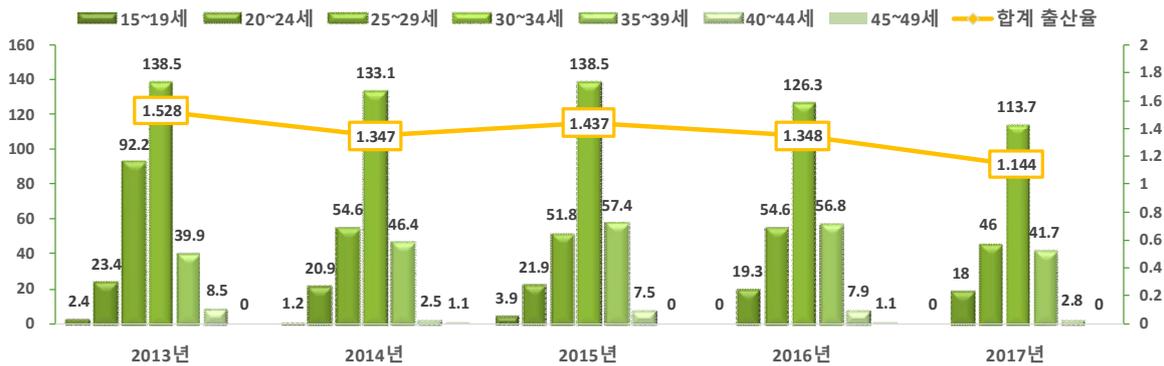
(단위 : 명)



- ▶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144명으로 전년(1.348명) 대비 15.1% 감소함
- ▶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113.7명), '25~29세'(46명), '35~39세'(41.7명) 순임
- ▶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30~34세'는 113.7명으로 전년(126.3명) 대비 9.9% 감소함

<연령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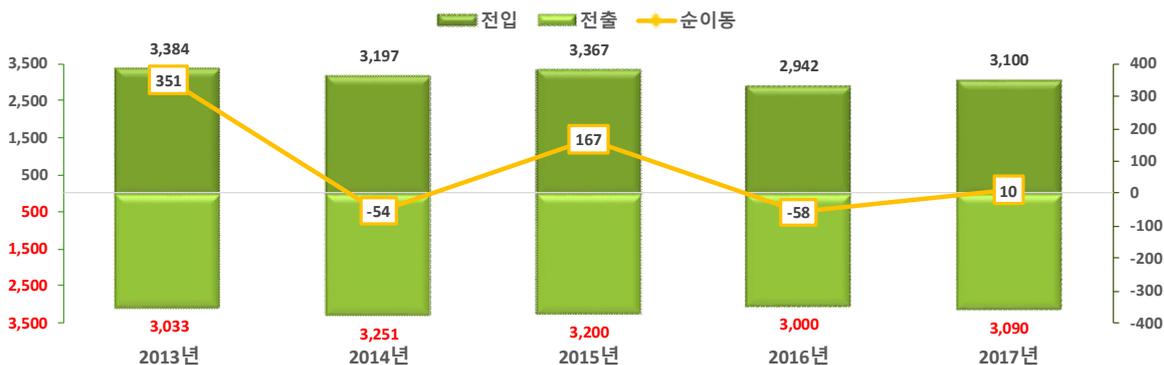
(단위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가임여성 1명당)



- ▶ 2017년 곡성군의 전입인구는 3,100명으로 2016년(2,942명) 대비 158명 증가하였고, 전출인구는 3,090명으로 2016년(3,000명) 대비 90명 증가함
- ▶ 순이동은 2017년 10명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2013년 이후 순유입과 순유출의 폭이 감소하는 추세임

<인구이동 및 순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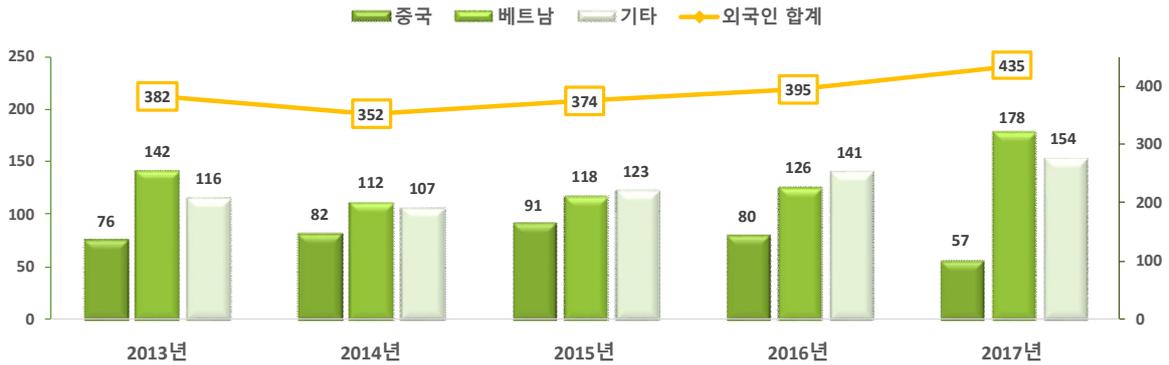
(단위 : 명)



- ▶ 2017년 외국인 인구는 435명으로 2016년(395명) 보다 40명 증가함
- ▶ 2016년 대비 2017년의 외국인 남자(180명→228명)는 증가했으며, 여자(215명→207명)는 감소함
- ▶ 국적별로 '베트남' 출신 외국인이 178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57명), '일본'(1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 국적별 외국인 인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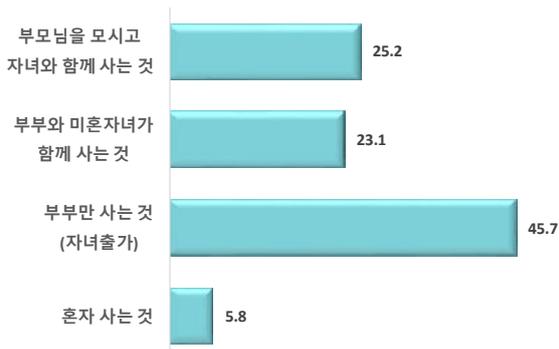


2. 가구와 가족

- ▶ 군민의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하는 형태의 가족구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선호도는 94%로 나타나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포함되는 항목은 '부부만 사는 것(자녀출가)'가 45.7%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25.2%,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이 23.1% 순으로 나타남
- ▶ '부부만 사는 것'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대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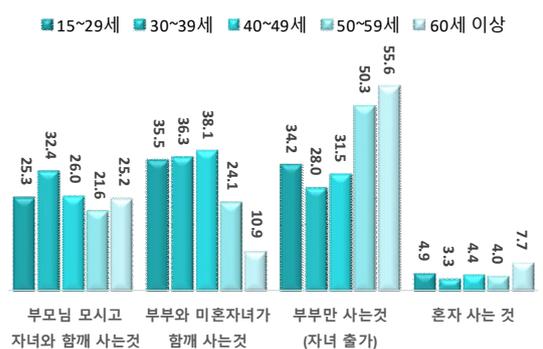
<이상적인 가족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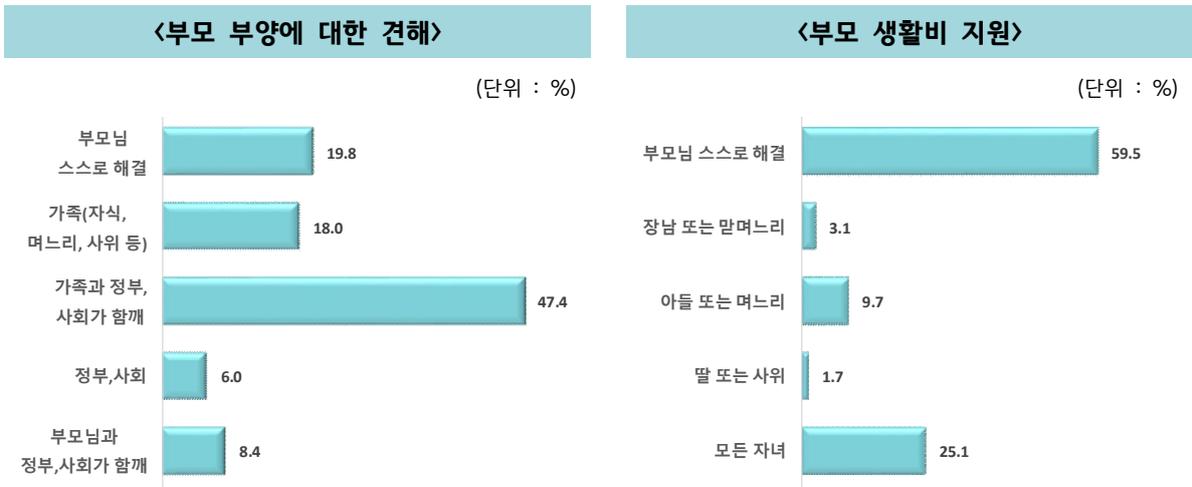


<연령별 이상적인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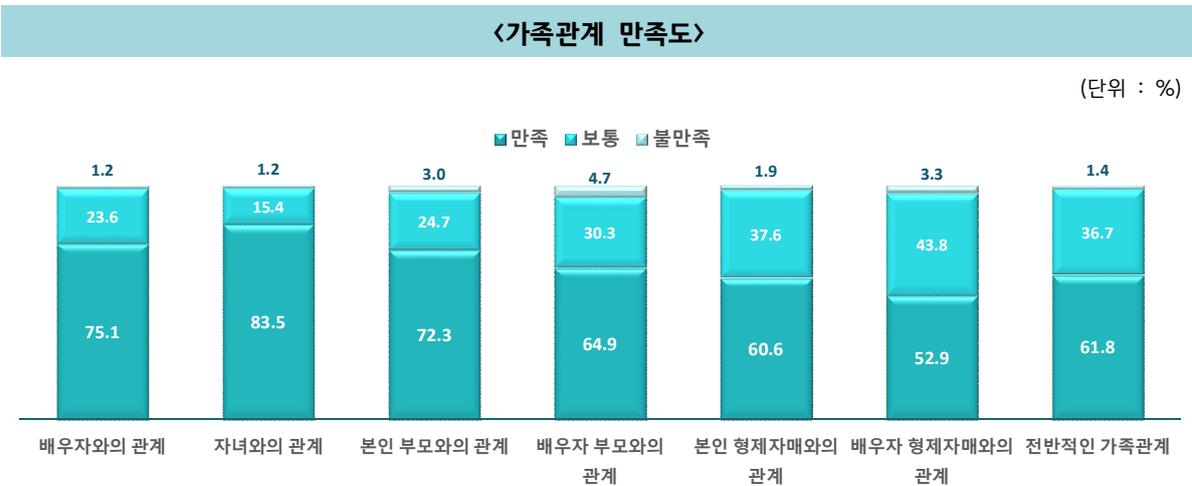
(단위 : %)



-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방안으로 주된 응답은 ‘결혼 지원금 지급으로 결혼을 장려’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2순위 해결방안으로 ‘자녀양육 근로자의 휴직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부모 부양은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47.4%)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부모님 스스로 해결’(19.8%), ‘가족’(18.0%) 순으로 나타남
- ▶ 부모님의 실제 생활비는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모든 자녀’가 25.1%, ‘아들 또는 며느리’가 9.7% 순으로 나타남



- ▶ 가족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83.5%), ‘배우자와의 관계’(75.1%), ‘본인 부모와의 관계’(72.3%),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64.9%)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구와 가족 부문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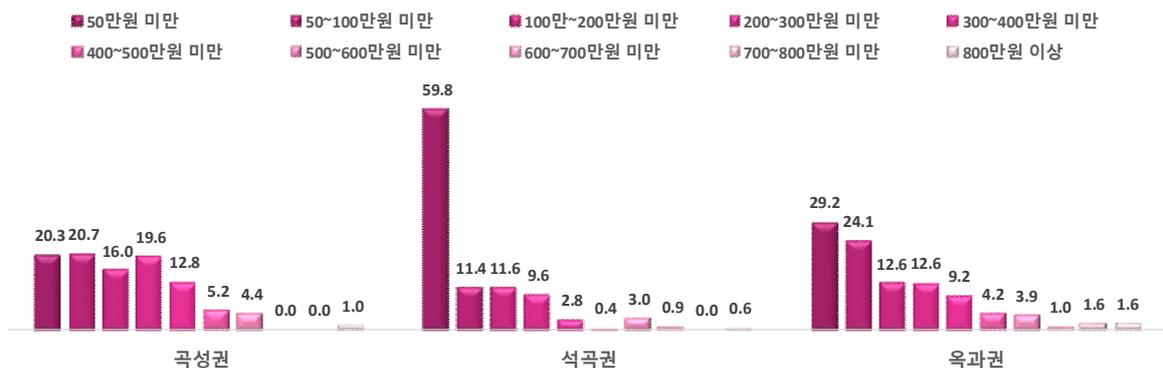
- ▶ 군민의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하는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의 선호는 연령이 젊을수록 선호도가 낮음
-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결혼 지원금 지급으로 결혼을 장려**’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세제, 교육비 지원 확대’가 19.1%, ‘현행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이 17.7% 순으로 나타남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곡성군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율이 높은 타 시군의 정책을 참고하여 출산율 제고에 힘써야 함
- ▶ **부모 부양**에 대해 과반수의 군민은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부모 생활비**의 경우 ‘**부모님 스스로 해결**’이 높게 나타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노인들의 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3. 소득과 소비

- ▶ 월평균 가구소득은 50만원 미만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된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으로 나타남
- ▶ 월평균 가구소비는 50만원 미만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100만원~200만원’(20.1%), ‘50만원~100만원’(19.9%) 순으로 나타남
- ▶ 부담되는 소비의 주된 응답은 ‘보건 의료비’가 32.5%, ‘식료품비’가 31.1%, ‘교육비’가 8.6%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



<지역별 월평균 가구 소비>

(단위 : %)



- ▶ 부채가 있는 가구(30.5%) 중 부채 금액은 '1억원 이상'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5천만원~1억원'(12.0%), '2천만원~3천만원'과 '3천만원~4천만원'이 각각 11.5% 순으로 나타남
- ▶ 부채의 주된 이유는 '사업/영농 자금'(40.1%)과 '주택 임차 및 구입'(36.7%)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직업별 가구 부채의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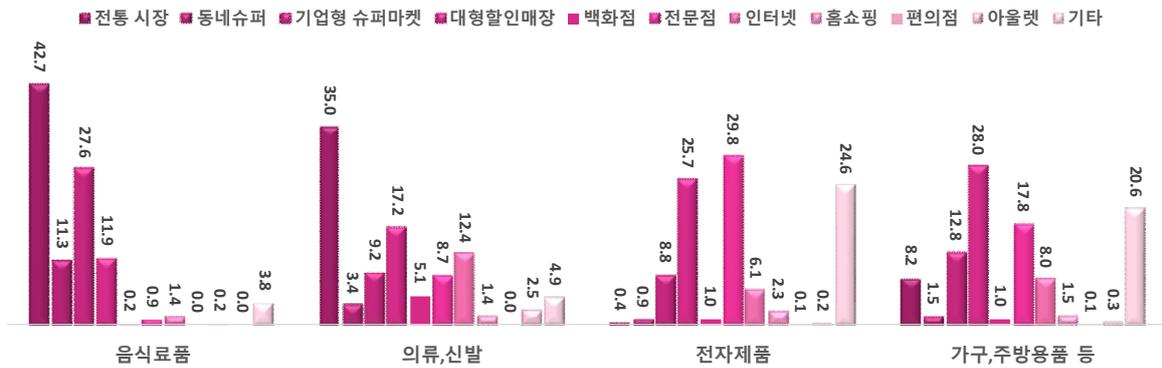
(단위 : %)



- ▶ 생활용품 구입장소는 구입 항목별로 차이를 보임
- ▶ ‘음식료품’, ‘의류, 신발’의 구입 장소로 ‘전통 시장’이 높게 나타남
- ▶ ‘전자제품’의 구입장소로 ‘전문점’이 높게 나타남
- ▶ ‘가구, 주방용품’의 구입 장소로 ‘대형 할인매장’이 높게 나타남

〈생활물품 구입장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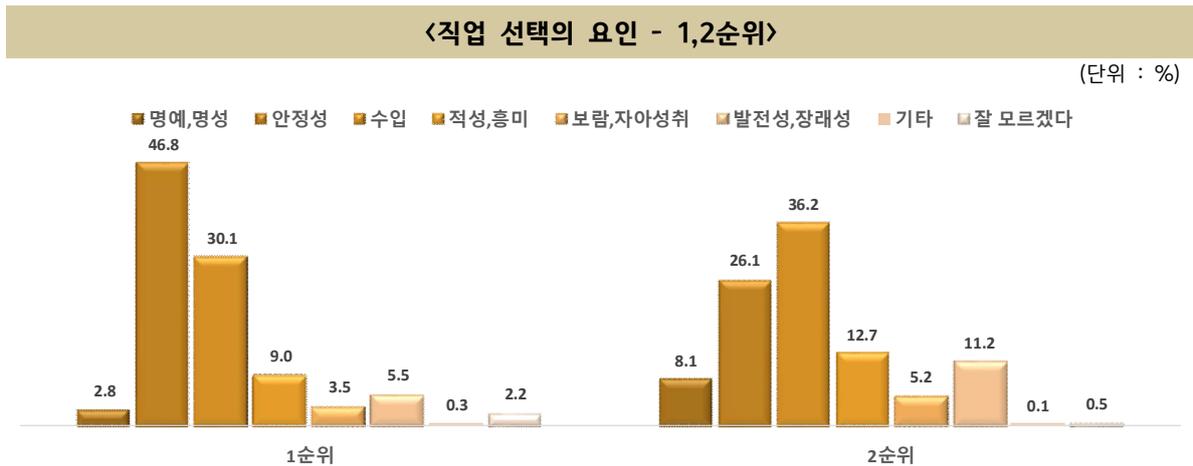


소득과 소비 부문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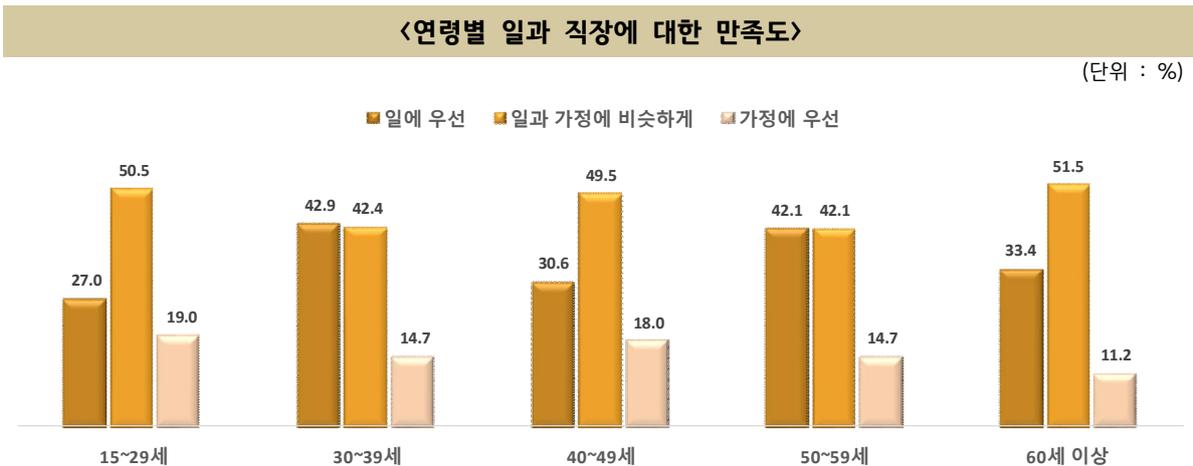
- ▶ 월평균 가구소득은 ‘50만원 미만’이 30.9%, 월평균 가구소비는 ‘50만원 미만’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주된 소득으로 ‘남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7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36.0%) 외 ‘정부 또는 사회단체 보조’(46.8%)가 높게 나타남
- ▶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특히 노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소득 증대와 소비 촉진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저축 장려와 복지 개선으로 가계 경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부담되는 소비로는 ‘보건 의료비’(32.5%)와 ‘식료품비’(31.1%)가 높게 나타남
- ▶ 가계 부채로 ‘1억원 이상’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부채 이유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채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 및 구입’이 ‘전문/관리’와 ‘사무’, ‘서비스/판매’ 직업군에서 높게 나타남
- ▶ 소득과 소비 구조는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가계부채는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므로 가계부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부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4. 노동과 경제

- ▶ 직업 선택 요인 중 주된 응답에서 '안정성'(46.8%)과 '수입'(30.1%)이 76.9%를 차지함
- ▶ 연령별로 '안정성'은 15~29세(36.1%)에서, '수입'은 30~39세(13.2%)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 ▶ 곡성군민 중 '일과가정에 비슷하게'에 응답한 비율이 47.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 '30~39'세에서 '일에 매우 우선', '일에 약간 우선'을 합한 비율이 43.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 '40~49세'에서 '가정에 매우 우선', '가정에 약간 우선'을 합한 비율이 18.0%로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남



- ▶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항목에서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을 합한 비율은 39.1%이고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을 합한 비율은 7.4%로 31.7%p차이를 보임

<일과 직장에 근로 여건 만족도>

(단위 : %)



노동과 경제 부문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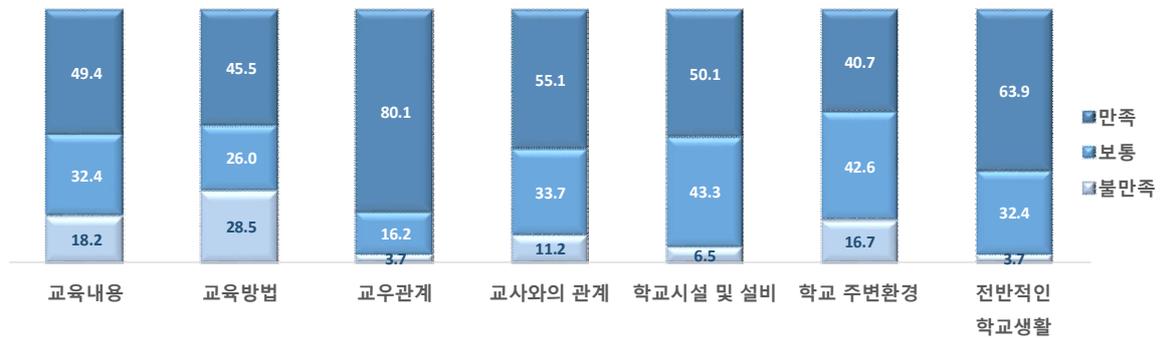
- ▶ **직업 선택의 요인**으로 '수입'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 초년생 나이인 '15~29세'의 경우 '적성·흥미'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 직업 선택 요인 설문 결과에 따라 고용정책에서 가장 고려해야할 점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낮은 연령대에서 요구하는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로 '임금', '장래성', '복리후생'에 대한 '불만족'이 다른 근로 여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수입'과 '안정성'에 대한 직업 선택의 요인의 의견이 반영됨을 알 수 있음**

5. 교육

- ▶ 교육환경에 대해 '교우관계'의 경우 '만족'이 80.0%로 높게 나타남
- ▶ '전반적인 학교 생활'의 경우 63.9%, '교사(교수)와의 관계'는 55.1%, '학교 시설 및 설비'는 50.2%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주변 환경'의 경우 40.7%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거주 지역 교육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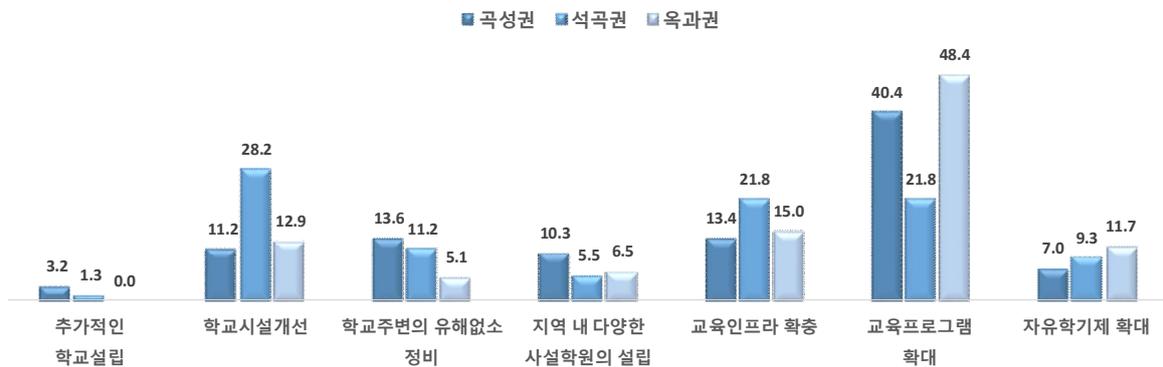
(단위 : %)



- ▶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에서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39.4%, ‘교육 인프라 확충’이 15.7%, ‘학교 시설 개선’이 15.2% 순으로 나타남
- ▶ ‘교육 프로그램 확대’는 ‘옥과권’(48.4%) ‘곡성권’(40.4%)은 다른 지역 ‘석곡권’(21.8%) 보다 높게 나타남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단위 : %)



교육 부문 총괄

- ▶ 곡성군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보통 이상의 **만족도는 96.3%**로 높지만, ‘교육 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남.
- ▶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업 및 진학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 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군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 ‘**석곡권**’의 경우 ‘**학교시설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지역별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6. 보건과 의료

- ▶ 곡성군민의 월 평균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는 3.3회이며, 지역별로 의료기관 이용한적 있는 군민은 ‘옥과권’(81.5%), ‘석곡권’(71.4%), ‘곡성권’(69.9%) 순으로 높음
- ▶ 이용 의료기관은 ‘병(의)원’(71.5%), ‘종합병원’(12.6%), ‘보건소’(5.6%) 순으로 나타남
- ▶ 의료서비스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의료 시설이 낙후 되거나 미비하다’가 20.4%로 나타나고,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가 18.0%,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가 17.3%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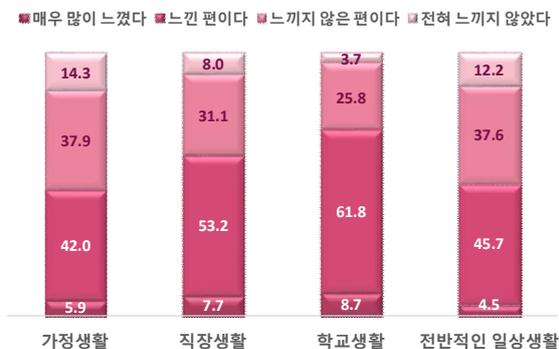
(단위 : %)



- ▶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경우 ‘느끼지 않는 경우’(느끼지 않은 편이다+전혀 느끼지 않았다)가 49.8%, ‘가정생활’(52.2%), ‘직장생활’(39.1%), ‘학교생활’(2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는 직업별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기능/노무’(81.2%), ‘서비스/판매’(66.5%), ‘전문/관리’(6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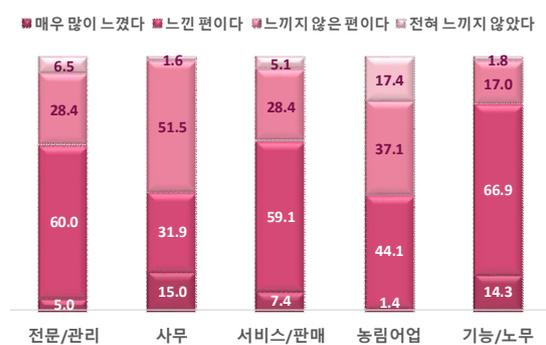
〈스트레스 정도〉

(단위 : %)



〈직업별 직장생활 스트레스 정도〉

(단위 : %)



보건과 의료 부문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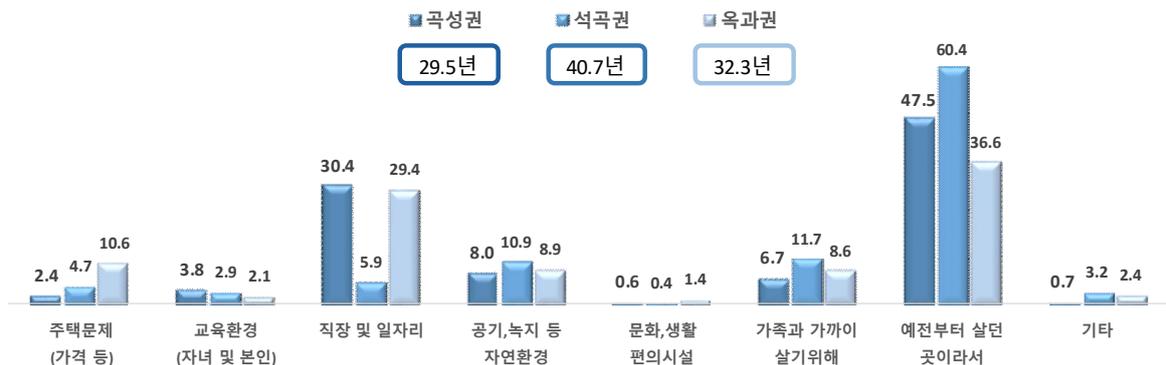
- ▶ 곡성군민의 월 평균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는 3.3회로 주된 이용 의료기관은 ‘병(의)원’으로 나타남
- ▶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석곡권’은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55.8%로 높게 나타났으며, ‘옥과권’은 ‘치료결과가 미흡하다’라는 응답이 높음
- ▶ 지역별 의료 서비스 불만족 이유로 알 수 있듯이 지역별로 요구되는 의료서비스 개선책이 다르므로 지역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군민은 70.8%로 나타났으며, ‘**기능/기계**’ 직업군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생활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

7. 주거와 교통

- ▶ 평균 거주 기간은 32.6년으로 나타남
- ▶ ‘석곡권’은 40.7년, ‘옥과권’은 32.3년, ‘곡성권’은 29.5년 순으로 오래 거주했음
- ▶ 거주 이유는 ‘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가 46.3%로 나타나고, ‘직장 및 일자리’가 25.3%가 높음

〈지역별 현 거주지 거주기간 및 거주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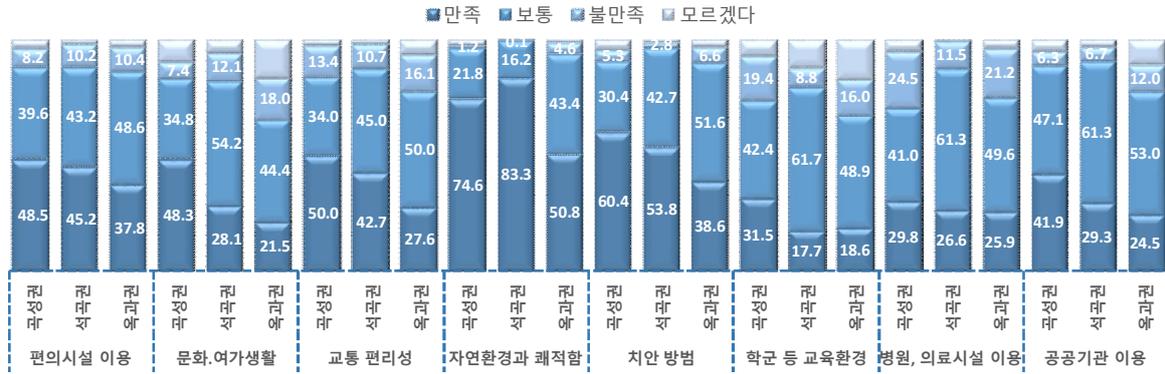
(단위 : %)



- ▶ 주거 환경 만족도로 ‘자연환경과 쾌적함’의 경우 ‘만족’이 67.9%, ‘치안 방법’(51.3%), ‘시장, 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44.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학군 등 교육환경’(24.1%)과 ‘병원, 의료시설 이용’(27.8%)은 낮은 만족도를 보임
- ▶ ‘석곡권’은 ‘자연환경과 쾌적함’의 응답이 83.4%로 다른 주거 환경만족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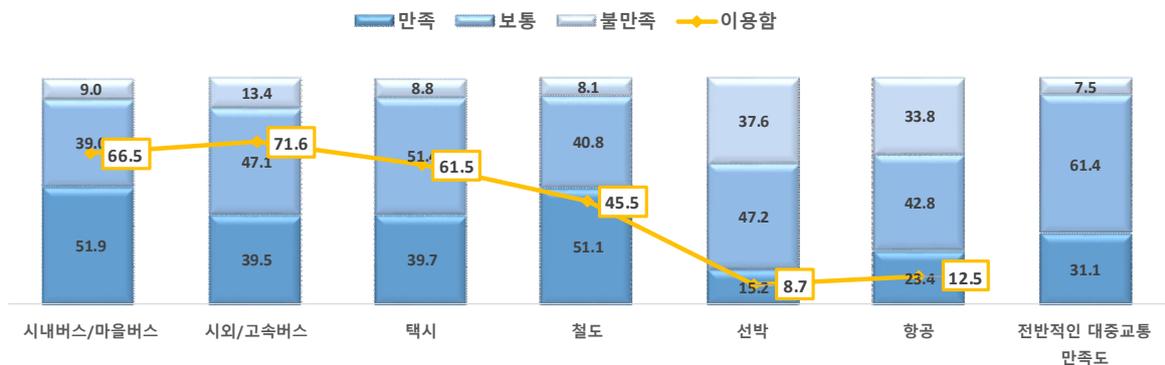
(단위 : %)



- ▶ 곡성 군민의 현재 주거 형태로 '단독주택'이 80.3%, '아파트'가 8.7%, '연립주택'이 5.9% 순으로 나타남
- ▶ 희망 주거 형태로 '단독주택'이 68.6%, '아파트'가 27.4%, '연립주택'이 2.3% 순임
- ▶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31.1%, '보통'이 61.4%, '불만족'이 7.5%로 나타남
- ▶ 이용 수단별로 '시내버스/마을버스'의 경우 '만족'이 51.9%, '철도'(51.1%), '택시'(39.7%), '시외/고속버스'(3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이용 비율이 71.6%로 나타나고, '시내버스/마을버스'(66.5%), '택시'(61.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중교통 이용 수단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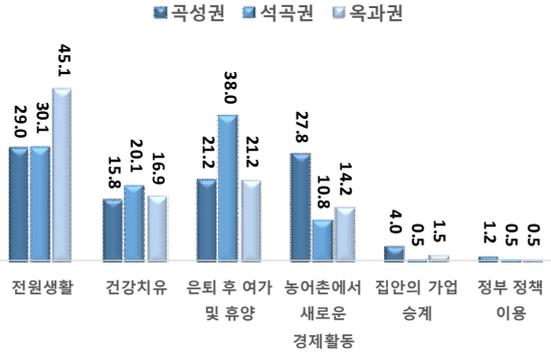
(단위 : %)



- ▶ 귀농어·귀촌의 이유로 '전원생활'은 35.0%로 나타나고, '은퇴 후 여가 및 휴양'이 24.6%, '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19.5% 순으로 나타남
- ▶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은 '정보제공 및 상담 활동'이 31.5%로 높으며, '정착 자금 용자 지원'이 24.0%, '관련 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19.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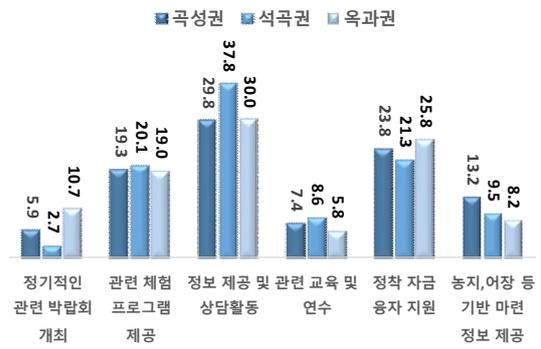
<귀농어·귀촌 이유>

(단위 : %)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

(단위 : %)



주거와 교통 부문 총괄

- ▶ 평균 거주 기간은 32.6년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이유로 ‘석곡권’(40.7년)은 ‘옥과권’(32.3년), ‘곡성권’(29.5년) 순으로 나타남
- ▶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자연환경과 쾌적함’과 ‘치안방범’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석곡권’과 ‘옥과권’은 ‘문화·여가생활’과 ‘문화·여가생활’, ‘병원·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용’이 ‘곡성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균형있는 주거환경 개선책이 필요함
- ▶ 군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시내버스/마을버스’(71.6%), ‘시외/고속버스’(75.3%), ‘택시’(61.5%) 순이며, 그 중 ‘시내버스/마을버스’에 대한 ‘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남
- ▶ 귀농어·귀촌에 필요한 지원으로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과 ‘정착 자금 용자 지원’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농업환경과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물론 안정된 정착과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8. 환경

- ▶ ‘녹지환경’의 경우 ‘좋음’이 61.4%로 나타나고, ‘생활소음’은 49.9%, ‘수질’은 47.7%, ‘쓰레기 처리’는 45.2%, ‘대기’는 39.1%순으로 좋다고 생각함
- ▶ ‘석곡권’의 경우 ‘녹지환경’이 ‘좋음’ 응답이 74.3%로 다른 지역보다 높음

<지역별 환경 체감도>

(단위 : %)



- ▶ 환경보전을 위하여 ‘분리수거’(75.1%)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55.8%)를 위해 가장 노력함
- ▶ 환경보전을 위하여 ‘합성세제 사용 안하기’와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22.9%)는 ‘노력안함’이 높게 나타남

<분야별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단위 : %)



환경 부문 총괄

- ▶ **녹지환경**은 보통 이상으로 ‘좋은’이 96.1%로 높게 나타났지만, ‘대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합성세제 사용안하기’ 실천은 ‘노력안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환경 캠페인 홍보활동 및 교육이 필요함

9. 사회와 복지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중 ‘장애인’의 경우 ‘수용’이 48.7%로 나타나고, ‘취약가정의 자녀’가 47.2%, ‘새로운 이웃’이 40.1% 순으로 나타남
- ▶ ‘전과자’에 대한 ‘배타/거부’는 42.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식〉

(단위 : %)



- ▶ 보육시설 선택 시 주된 고려사항은 ‘보육시설의 교육 내용’이 43.6%, ‘주변 환경 및 안전시설’이 22.8%, ‘보육시설 월 지출비’가 21.6% 순으로 나타남
-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는 ‘보육비 지원 확대’가 26.9%로 나타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22.3%,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17.5% 순으로 나타남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



〈지역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단위 : %)



- ▶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으로 ‘노인 돌보는 사업’이 36.3%로 가장 높으며, ‘공동 작업형’ (20.1%), ‘취약 계층 지원’(17.9%) 순으로 나타남
-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적정 연령은 ‘60세~80세’(38.8%)와 ‘60~70세’(35.8%)가 높게 나타남

사회와 복지 부문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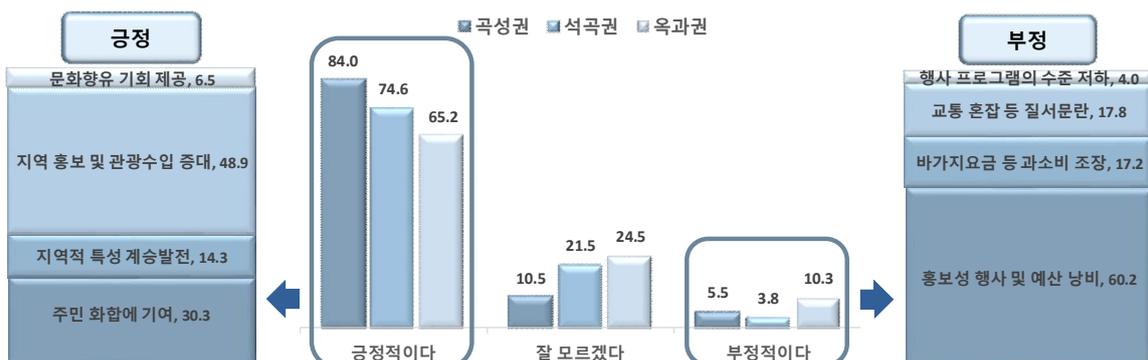
- ▶ **보육시설 선택** 시 주된 고려사항은 1순위는 ‘보육시설의 교육내용’, 2순위는 ‘주변 환경 및 안전 시설’로 나타남에 따라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반영 됨을 알 수 있음
- ▶ **국공립 보육시설**은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보육의 질도 높게 평가 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므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립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평가인증을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옥과권**’은 ‘**보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 ‘**노인 돌보는 사업**’과 ‘**공동작업형**’ 사업이 적절 하다고 생각함

10. 여가와 문화

- ▶ 지역 문화행사에 대해 ‘**긍정적이다**’(75.4%)이며, 긍정적인 이유로 ‘**지역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는 48.9%로 나타나고, ‘**주민 화합에 기여**’(30.3%), ‘**지역적 특성 계승발전**’(14.3%) 순으로 나타남
- ▶ 지역 문화행사에 대해 ‘**부정적이다**’(6.9%)라는 응답자의 부정적인 이유로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가 60.2%로 나타나고, ‘**교통 혼잡 등 질서 문란**’(17.8%), ‘**바가지 요금 등 과소비 조장**’(17.2%) 순으로 나타남

<지역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견해>

(단위 : %)



-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1순위로 'TV 시청'이 55.5%로 높게 나타나고, 2순위와 3순위는 '휴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은 1순위로 '관광'이 25.7%로 가장 높으며, 2순위와 3순위는 '휴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여가와 문화 부문 총괄

- ▶ 군민의 대부분이 지역 문화행사에 대해 '**긍정적(75.4%)**이며, 긍정적 이유로 '**지역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48.9%)**와 '**주민 화합에 기여(30.3%)**가 높게 나타남
- ▶ 지역 문화 행사에 대한 '**부정적(6.9%)** 의견으로는 '**홍보성 행사 및 예산 낭비(60.2%)**가 높게 나타남
- ▶ 따라서 문화행사를 기획함에 있어 세심한 계획으로 중복성이나 선심성을 배제하고 지역 간 연계 행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선택하고 주민 참여와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 ▶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 활동은 '**TV시청**'과 '**휴식**'이며,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과 '**휴식**'이 높게 나타남
- ▶ 앞으로 하고싶은 여가 활동으로 '**관광**'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 가족구성별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야함

11.

안 전

- ▶ '보통'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8%로 높음
-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중 '국가안보'의 경우 '안전'이 51.1%, '범죄위험'이 51.2%로 높게 나타남
-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중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은 17.3%, '자연재해'는 14.5%로 다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보다 높게 나타남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



- ▶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법용 CCTV 확충’이 48.8%로 높게 나타나고, ‘보안등, 공원등 설치로 범죄 취약지역 해소’가 19.1%, ‘안전매뉴얼 및 시민의식을 높이는 홍보 및 교육’이 10.8% 순으로 나타남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

(단위 : %)



안전 부문 총괄

- ▶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보통 이상의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나타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이 다른 사회안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나 청소년들의 안전운전 교육이 필요함
- ▶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방법용 CCTV 확충’이 높게 나타남. 특히 ‘국민권’과 ‘부모권’에서 높은 응답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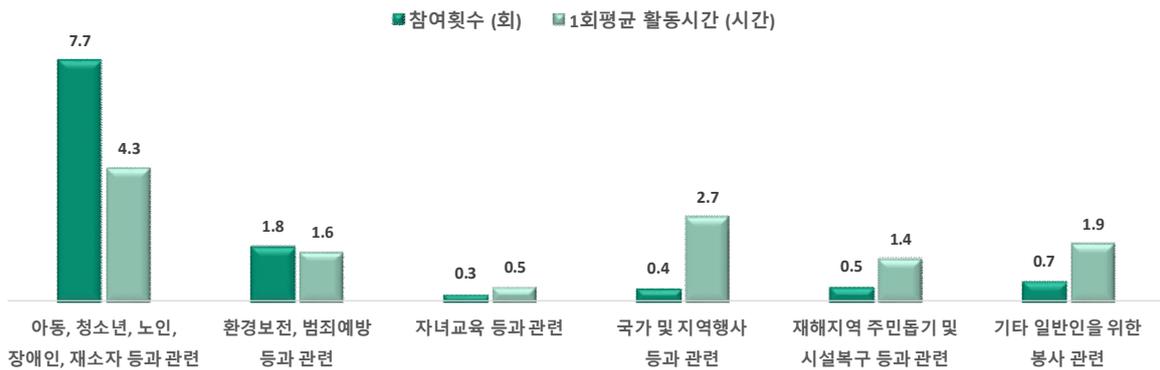
12.

공동체와 사회참여

- ▶ 자원봉사 참여 한 적 '없다'(87.5%)는 응답 중 31.9%는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사가 있음
- ▶ 자원봉사 참여 활동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이 높게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 분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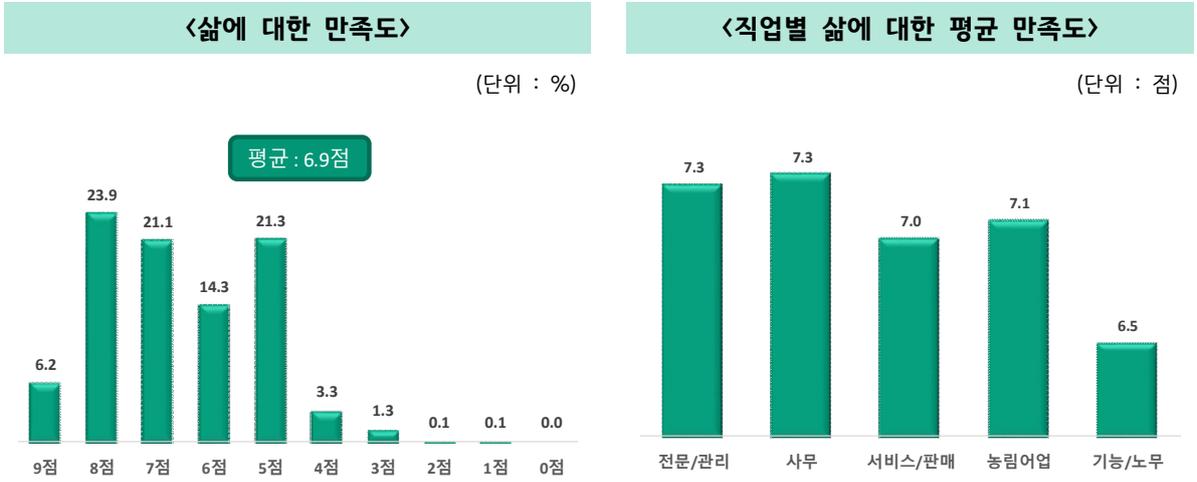
- ▶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가 61.0%이며, '60세 이상'이 69.6%로 가장 높고, '15~29세'는 40.5%로 가장 낮게 나타남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단위 : %)



- ▶ 곡성군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6.9점이며 ‘기능/노무’ 직업군은 평균 6.5점으로 다른 직업보다 낮게 나타남
- ▶ ‘15~29세’는 평균 7.4점으로 다른 연령 ‘30대’(7.0점), ‘40대’(7.0점), ‘50대’(7.1점), ‘60세 이상’(6.5점)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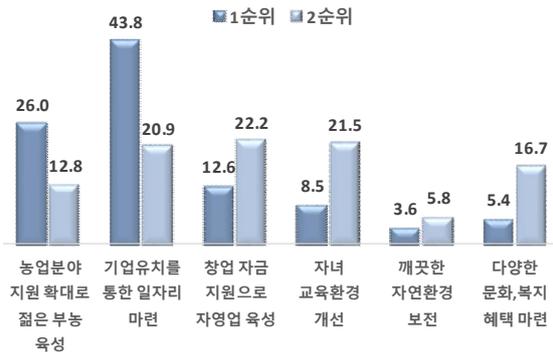
공동체와 사회참여 부문 총괄

- ▶ **군민의 자원봉사 참여자(12.5%)**의 주된 봉사 활동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으로 나타났고, **참여하지 않은 군민의 31.9%**는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함
- ▶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다’는 군민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시스템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으로 자원봉사를 적극 홍보하고 후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 ▶ **지역민으로써 자부심**은 보통이상이 **94.1%**로 나타남.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응답은 ‘60세 이상’이 69.6%로 가장 높고, ‘15~29세’는 40.5% 가장 낮게 나타남
- ▶ 군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6.9점으로 전년(6.4점) 대비 7.8% 상승하였고, ‘8점’(23.9%), ‘5점’(21.3%), ‘7점’(21.1%) 순으로 나타남.

- ▶ 청년인구(19세~49세)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마련’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농업분야 지원 확대로 젊은 부농 육성’(26.0%), ‘창업 자금 지원으로 자영업 육성’(12.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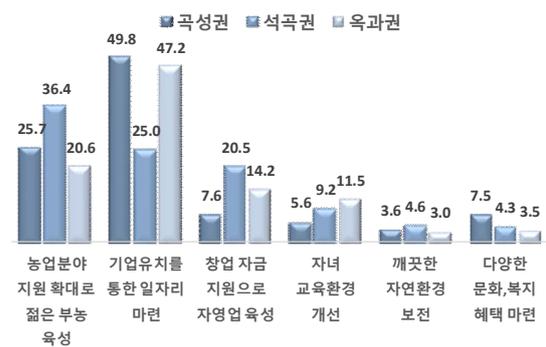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단위 : %)



<지역별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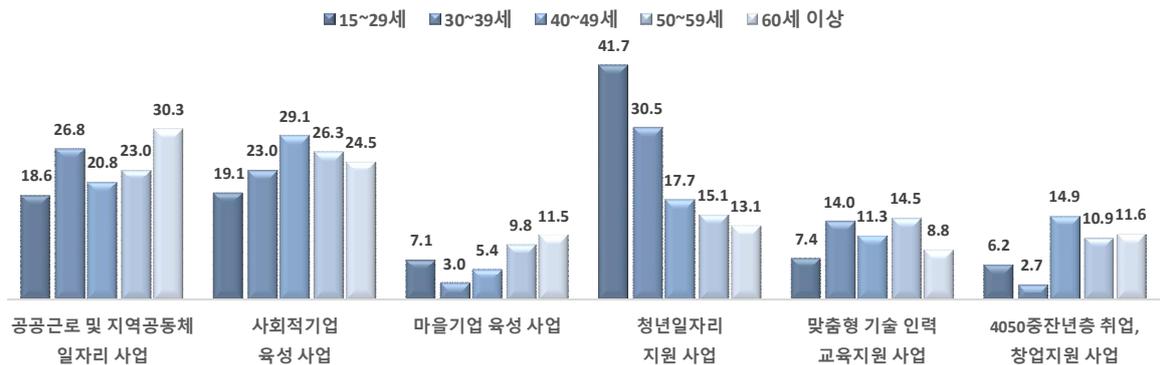
(단위 : %)



-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25.4%),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24.5%),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2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일자리 창출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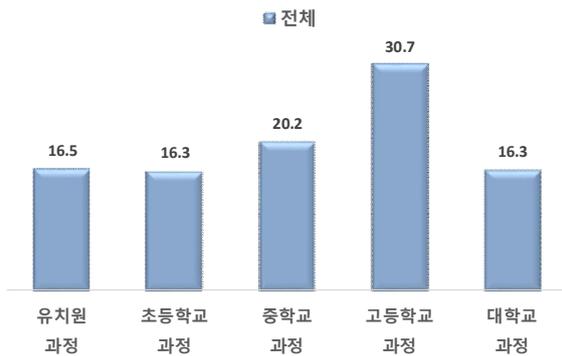
(단위 : %)



- ▶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해야 할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30.7%)이 가장 높으며, ‘중학교 과정’(20.2%)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 ‘곡성권’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39.0%), ‘석곡권’은 ‘유치원 과정’(30.1%), ‘옥과권’은 ‘대학교 과정’(32.5%)으로 지역별로 지원해야 한다고 느끼는 교육과정의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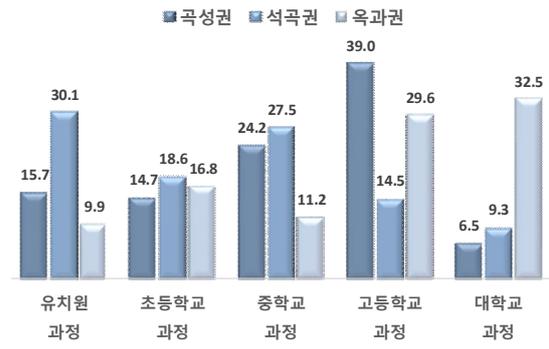
〈우선 지원 교육과정〉

(단위 : %)



〈지역별 우선 지원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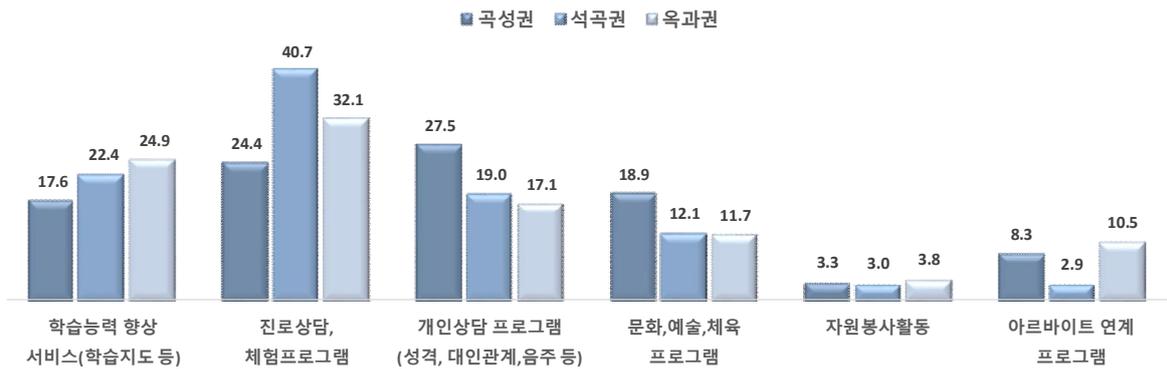
(단위 : %)



- ▶ 청소년 복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프로그램)으로 '진로상담, 체험프로그램'(30.5%), '개인상담, 프로그램'(22.1%), '학습능력 향상 서비스'(21.2%) 순으로 높게 나타남

〈청소년 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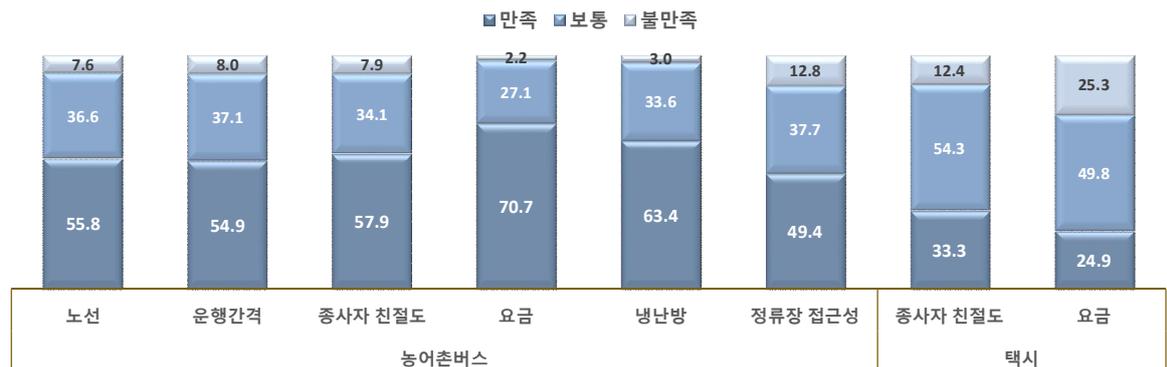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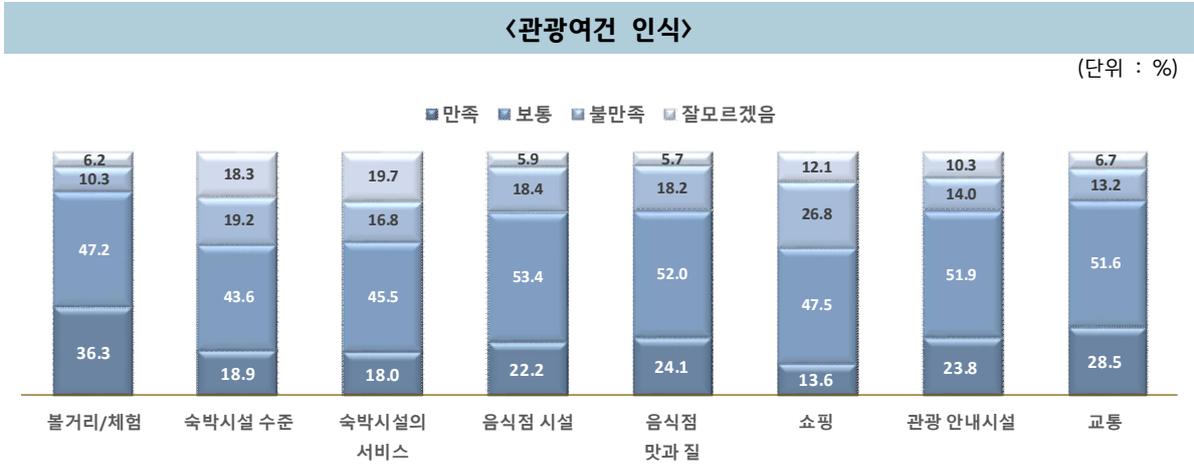
-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중 '농어촌 버스'에 대한 '만족'으로 '요금'이 70.7%로 높게 나타났으며, '냉난방'(63.4%), '종사자 친절도'(5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택시'의 만족도는 '농어촌 버스'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종사자 친절도'(33.3%), '요금'(24.9%) 순으로 나타남

〈대중교통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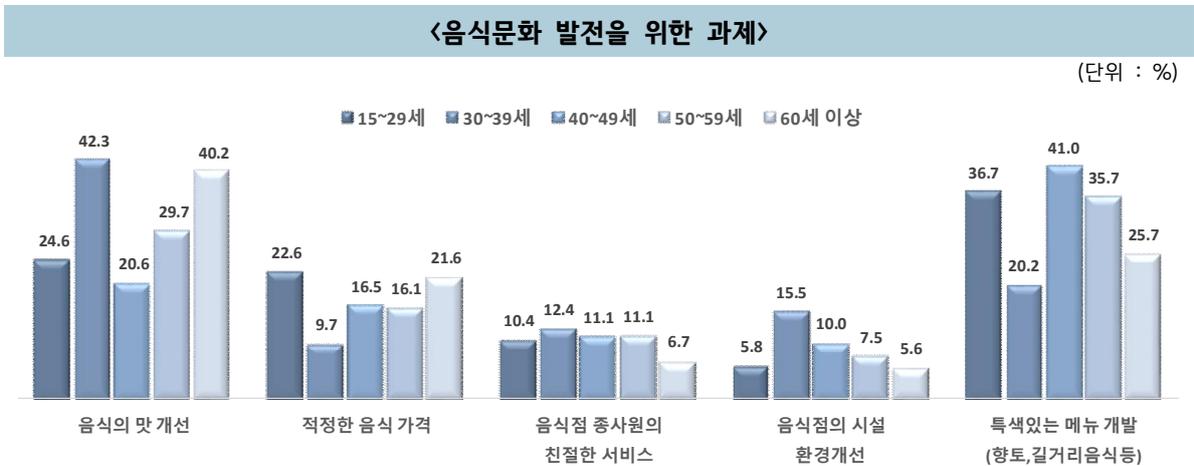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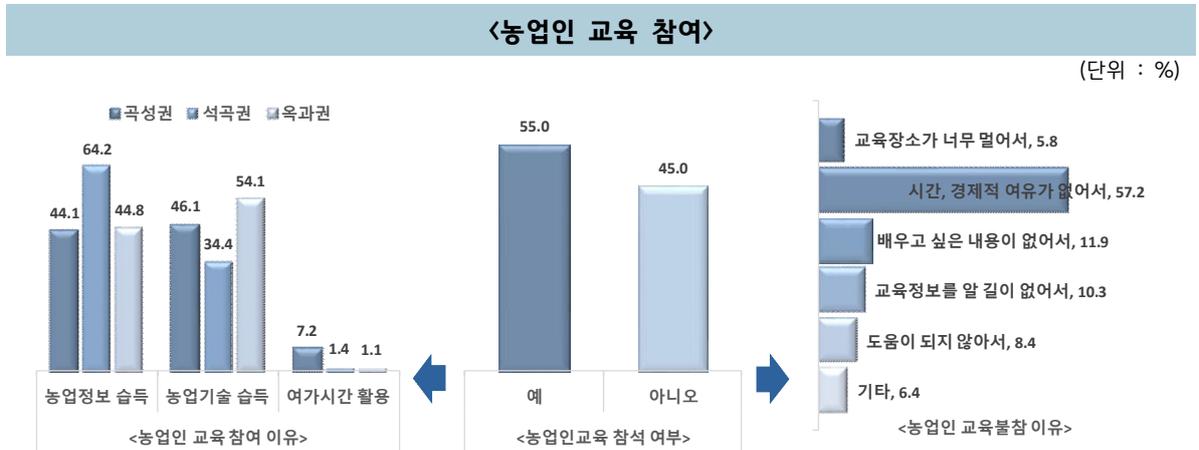
- ▶ 관광 여건 중 '볼거리/체험'에 대한 '만족'의 경우 '볼거리/체험'(36.3%), '교통'(28.5%), '음식점 맛과 질'(24.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은 '쇼핑'(26.8%), '숙박시설 수준'(19.2%), '음식점 시설'(1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음식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음식의 맛 개선'(33.1%), '특색있는 메뉴 개발'(31.1%), '적정한 음식 가격'(19.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농업인 교육을 참여 한 적 여부에 '예'(55.5%)라는 군민의 주된 참여 이유는 '농업정보 습득'(49.6%)과 '농업기술 습득'(46.5%)이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 한 적 없는 군민의 주된 이유로는 '시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곡성군 특성문항 부문 총괄

- ▶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마련**'이 4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젊은 부농 육성**'(26.0%)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농업활동 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농업활동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함
-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가 높으며, 청년들의 농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인구 유출을 막음과 동시에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
-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높으며, '20~30대' 연령대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
- ▶ 우선 지원 **교육과정**으로 지역별로 '**곡성권**'은 '**고등학교 과정**'이 높으며, '**석곡권**'은 '**유치원 과정**', '**옥과권**'은 '**대학교 과정**'으로 차이가 나타남. 지역별 수요에 맞는 교육지원 사업이 필요함
- ▶ **청소년 복지 서비스**로 '**진로상담, 체험프로그램**'이 높은 응답을 나타냄. 지역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 **농어촌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정류장 접근성**'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추후 농어촌버스 노선 및 정류장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 **군내 관광여건**의 경우 '**쇼핑**'과 '**숙박시설 수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노후된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과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